

7월의 기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1.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용서와 구원의 옷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3.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도 아끼고 보호하며 살게 하옵소서.
5. 현실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6.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최인철, 함석숙, Imaobong Odotola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무관심

관심의 힘은 대단합니다. 나는 어떤 부형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한다면서 너무 바빠서 가족들을 등한히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부인이 암에 걸려서 암이 온 몸에 퍼져버린 것입니다. 부인은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가정에 무관심했던 남편은 아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집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성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주라. 네 아내를 그냥 내동댕이 쳐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관심을 기울여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후, 그날부터 아침에 자고 깨면 세숫대야에 세숫물 떠 놓고 아내의 얼굴을 씻어주고, 그 다음 밥을 지어서 직접 밥도 숟가락을 아내의 입에 갖다 먹여주고, 목욕통에 물 데워서 목욕 시켜 주고, 옷도 입혀 주고, 아내 옆에 앉아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무슨 쇼를 하느냐.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그렇게 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은 '결판이 날 때까지 내 무관심의 죄를 회개하고 부인에게 보답을 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으로 계속 한 것입니다.

부인이 가만히 보니 보통일이 아닙니다. 결국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게 됐고,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게 되자, 사는 데 희망이 생겨나 그만 암이 낫게 됐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표현하니 그 부인이 암을 이기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약은 없다"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암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16 인도 하나님의성회 100주년 기념성회



인도는 남부아시아에 위치하고 인구수가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불교가 발달한 나라이며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힌두교도이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기독교가 전파되었지만 크게 부흥하지 못하고 아직도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지난 2016년 6월 인도의 남부 해안도시 첸나이에서 인도 하나님의성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성회가 열렸다. 첸나이는 사도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곳으로, 과거 1994년 약 150만명이 참석한 인도 개신교 최대의 집회로 기록된 조용기 목사의 성회가 열렸던 곳이다. 22년만에 다시 조용기 목사가 첸나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인도하나님의성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인도 성회는 '지경을 넓혀라(SCALE UP)'라는 주제로 이틀간 개최되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주강사로서 성회를 인도하며 인도하나님의성회 100주년을 축하하고 4차원의 영성을 통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조용기 목사는 꿈과 비전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세계최대의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며 "나는 5명의 성도로 목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500명의 성도를 바라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또한 매일 5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꿈꾸었고, 그 결과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다"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좋은 생

각을 주시고, 생각을 통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꿈꾸며 입술로 선포할 때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하며 나아가 인도 복음화의 꿈도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성회에는 인도 전역에서 오순절 성령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는 약 30만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당시 인도복음주의 교회의 에스라 수르구남 주교가 조용기 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인도 첸나이의 많은 영혼들은 과거 사도 도마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이 1994년 조용기 목사의 대성회를 통해 폭발적으로 부흥되었던 것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인도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소중환 성회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사탄이 존재하는 곳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 흠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에베소서 2장 1~5절)

1. 기도로 마귀를 쫓아내라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마귀는 영적으로 수많은 이단을 통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한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니라”(요 14:6절)고 했는데 마귀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되고 그릇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로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울 때, 한두 번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낙심해서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밀고 당기면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배 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해도 끝까지 기도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 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약 4:7)고 말합니다. 마귀의 꾀방을 끝까지 기도로 대적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라

둘째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면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4차원의 영성의 첫째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늘 승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

답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그릇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응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므로 여러분은 항상 승리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부요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므로 여러분은 끊임없이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성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사용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꿈을 꾸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환경을 초월한 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은 영혼이 잘 되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범사가 잘 되는 꿈이 될 수도 있으며 몸이 건강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 하는 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감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아무 증거 안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입술의 창조적 선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입술로 말을 크게 하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3. 성령님과 함께 싸우라

셋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진치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차원의 존재 속에는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3차원이 다스리면 3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4차원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세계는 3차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의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4차원에 속한 영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3차원의 물질세계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성령은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붙잡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은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꽂 들어찬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차원의 지도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소망 가득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고 여러분은 성령님의 손을 잡고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집: 조용기 목사의 대륙별 해외성회 ⑦

남아메리카(I)



▲ 1997년 9월 브라질 성회

◀ 1997년 9월 브라질 성회



▲ 2004년 10월 과테말라 성회

◀ 2001년 11월 온두라스 성회

남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은 오랜 세월 스페인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톨릭이 가장 부흥했을 당시에는 대륙 전체에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80%에 이를 정도였다. 현재는 개신교가 점차 부흥하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오순절 교회들의 성장이 두각을 나타내며 칠레에서는 어느 마을을 가든지 오순절 감리교회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신교가 괄목할 만한 부흥을 나타내고 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지난 1987년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브라질, 도미니카공

화국, 니카라과, 멕시코 등 남아메리카 대륙 다수의 나라에서 성회를 인도하며 오순절 성령의 강한 역사를 불러일으켰다.

조용기 목사는 해외 선교지 가운데 가장 먼 곳인 남아메리카 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성회를 인도해 성령의 역사를 나타냄과 동시에 현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교를 세워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여 남아메리카의 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남미의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지인 제자들을 양육해 복음전파에 온 열정을 쏟고 있다.

지난 1997년 9월 브라질에서 열린 성회에는 조용기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15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1990년대 당시 브라질 인구의 80%가 가톨릭 신자였기에 더욱 놀라운 숫자의 인원이었다. 조용기 목사의 1997년 브라질 성회 이후 브라질에서의 성령 사역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 뜻 깊은 있는 성회였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선교사역은 한인 교민보다 남아메리카 현지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